

도침술의 시대적 고찰을 위한 문헌조사연구

손영훈¹, 윤상훈², 육동일³, 성인수³, 김민정³, 홍권의^{3,*}

¹당진시 보건소

²김제시 보건소

³대전대학교 부속대전한방병원 침구의학과



[Abstract]

Research Literature for Periodical Consideration about *Dochim*

Young Hun Son¹, Sang Hun Yoon², Dong Il Yuk³, In Su Sung³,
 Min Jung Kim³ and Kwon Eui Hong^{3,*}

¹Dangjin City Public Health Center

²Gimje City Public Health Center

³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Korean Medicine Hospital,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Dochim* have been recorded in Korean medical classics as a diversified instrument for acupuncture to treat patients with various symptoms. Recently, there is a lot of Korean Medicine Doctors are increasingly using *Dochim*. For this reason this study surveyed the changing of *Dochim's* conformation and application through the literature.

Methods : We investigated conventional paper and literature about *Dochim*,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time.

Results : Despite changes in the times *Dochim* was used continuously as a surgical procedure. Recently, as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sterilization utilizing the frequency is increasing.

Conclusions : *Dochim* is worth as the surgical procedure and continuously clinical utilization are needed in the future.

Key words :

Sa-Am spleen-tonifying
 acupuncture;
 Radial pulse;
Cun;
Guan and *Chi*;
 3 dimensional pulse
 imaging system

Received : 2013. 08. 29.

Revised : 2013. 08. 30.

Accepted : 2013. 08. 30.

On-line : 2013. 09. 20.

*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Korean Medicine Hospital, Daejeon University, 176-9, Daeheung-ro, Jung-gu, Daejeon, 301-724, Republic of Korea
 Tel : +82-42-229-6816 E-mail : hkeacu@hanmail.net

I. 서론

최초의 한의학 서적인 《黃帝內經·靈樞·九鍼論》에 9가지 종류의 九鍼이 등장하며 이는 여러 모양의 펌석에서 발전된 것이다¹⁾. 《黃帝內經》 이후 한의학은 끝이 모기의 주둥이처럼 날카로운 毫鍼부터 끝이 크고 무딘 大鍼까지 다양한 침도구가 존재했으며 질병의 상황에 맞게 사용되었다. 또한 출혈 외의 단순 자극을 위한 침술, 출혈을 위한 침술, 최소 침습을 원칙으로 한 침술, 최대 침습을 통한 광범위한 조직의 절개를 위한 침술 등 다양한 침술이 존재했다. 횡입법·직입법·십자형 절개법·천자형 절개법·폼자형 절개법·사자형 절개법·오공형 침자법·요자법·요락법·할법·제법에 이르기까지 그 방법 또한 매우 다양했다²⁾.

도침술은 펌석 중 날카로운 도기편과 칼 모양의 침인 피침을 대표적 도구로 천층 뿐 아니라 심층의 사기를 몰아내는 데 적용되었던 한의학 고유의 침법이다. 도침술은 瘡傷과 勞傷으로 인한 병리산물인 庫·癰·疽·瘤 등을 치료하는 데 적극 활용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중기치료에 활용되었으며 국가적 지원 아래 크게 발전하였다. 하지만 이후 일제강점기 한의학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도침술 또한 그 맥이 끊겨 민간을 중심으로만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다행히 1980년 후반 이후 한방외과술과 치종의학에 대한 연구와 함께 도침술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도침술의 현대화된 도구인 일회용 刀鍼의 정식의료기기 등록 이후 본격적인 임상실천 또한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 및 韓方外科術과 治腫醫學에 대한 연구 속에 산재된 도침술에 대한 기록을 종합하여 도침술을 시대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도침술에 대한 시대 연구를 도침술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고찰, 도침술이 국가의 적극적 지원 아래 독창적 발전을 이루었던 조선시대 대한 고찰, 일제강점기 이후 침체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기의 3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II. 본론

1. 도침요법의 형성과 발전

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BC 2000년경 함무라비 법전에 청동으로 만든 칼로 수술을 시행하여 성공하였을 때 그 값을 치를 것과,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벌금에 대한 법조문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BC1500년경 이집트의 파피루

스에는 창상과 골절에 대한 수술 치료가 등장하며 탈구뿐 아니라, 포경수술, 정맥절개술, 백내장에 대한 수술까지도 광범위하게 행해졌음이 기록되어 있다. BC 100년경 인도에서는 조비법이 발달하였는데 이는 코나 귀가 잘리는 형벌을 당했을 경우 피부의 일부를 떼어 코 모양을 만드는 성형술의 일종이며, 그리스 및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다³⁾. 이처럼 고대 각 문명에서는 질병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존재했으며 동양의학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다양한 형태의 펌석 및 침 도구를 활용한 절개 등의 적극적 치료법이 존재하였으며, 도침술도 이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도침술은 도자기 파편 등 날카로운 물체로 인체를 절개하여 사혈함으로써 경피 경근 경맥의 사기를 몰아내는 방법이며, 전국시대 말기의 서적인 《韓非子》에 최초로 등장한다. 중국 고대의 사상가인 한비가 법가 사상을 저술한 책인 《韓非子》에는 편작이 칼 모양의 침을 활용하여 뼈의 병을 치료하였음이 서술되어 있다⁴⁾. 이를 통해 칼 모양의 침 도구를 활용한 치료법이 기원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의학서적 중 가장 오래된 《黃帝內經》에도 칼 모양의 침 도구를 활용한 치료법이 여러 편에 걸쳐 서술되어 있다. 《素門》에는 鈹鍼을 사용한 防血療法이 서술되어 있으며, 《靈樞·官鍼》에서는 “刺大膿以鈹針也”라 하여 大膿 즉 실질조직의 병리변화에 鈹鍼을 사용하였음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靈樞·官鍼論》에 “故爲之治鍼，必令其末如劍鋒廣二分半 長四寸 主大癰腫 兩熱爭者也”라 하였으며, 《靈樞·九鍼十二原》에서 “鈹鍼者，末如劍鋒，以取大膿”이라 하여 鈹鍼의 자세한 형태와 치료대상을 서술하였다. 《靈樞》에서 “勿石 石之者死，須其柔，乃石之者生”이라 서술하였는데, 이는 멍쳐서 돌과 같이 딱딱한 것을 절제할 경우 출혈이 멈추지 않으며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鈹鍼을 활용한 도침술의 적응증과 금기증을 나타낸 것으로 도침술의 시행이 오랫동안의 임상축적을 통해 나름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黃帝內經》 이후 문헌에 의하면 도침술의 연구와 임상실천이 계속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정밀한 발전을 이뤘음을 확인할 수 있다. 《五十二病方》⁵⁾에는 “快取若刀 以割若葦而用若肉 若不去，苦”라 기록되었는데 이는 도침술을 행하는데 신속히 자입할 것과 갈대모양으로 절개할 것을 서술한 것으로 주변 조직의 손상을 막기 위한 도침술의 시술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脈法》에는 “用砭啓脈者必如式”이라 서술하여 날카로운 펌석을 활용하여 치료하는데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여 도침술에 일정한 시술원칙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劉涓子鬼遺方》⁶⁾ 4권에는 “癰大堅者 未有膿 半堅薄半有膿 當上薄者都有膿便可破之 所破之法 應在下逆上破之 令膿得易出 用鈹針”，“凡人患發背，… 覺自

有膿成 使用火熟鐵鍼 當正頭烙之。其針烙 并用麻油灯火上燒令通紅 平平烙入可二寸。初用烙針 須從橫挿入 不得正入恐烙透膜也”라고 서술하여 도침술을 행할 때 농의 형성단계와 침끝의 방향을 서술하였는데, 특히 등 부위를 찌를 때는 막을 찌를 위험이 있으니 직각으로 자입하지 말고 횡으로 자입하라고 하였다. 《外科大成》⁷⁾에서는 “毒生背腹肋脇等處 宜扁鍼斜入 以防透膜之害”이라 서술하여 등과 복부 옆구리에 도침술을 행할 때는 막을 손상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횡으로 자입해야 함을 서술하였다. 《外科理例》⁸⁾에서는 “醫曰：但宜淺而不宜深，宜橫而不宜直入，恐傷膜，宜下而不宜上 恐貯膿血。”이라 서술하여 도침술을 행할 시 자입함에 깊이를 잘 살펴 격막을 뚫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 《外科精要》⁹⁾에서는 “癰成膿則宜鍼 其針當以馬銜鐵為之 形如薤葉樣 兩面皆利 可以橫直裂開五六寸許 取去毒血 其病頓輕 須先灸而后裂”이라 하여 마함철로 만든 넓은 날의 침을 사용한 도침술의 시술과, 뜸을 선행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이 서술되어 있다. 이처럼 피침과 날카로운 자기편 등을 활용한 도침요법은 지속적 임상연구와 실천이 진행되면서 그 부위와 시술방법이 구체화 되었을 뿐 아니라, 적응증과 금기증이 분명해졌다. 또한 문헌을 통해 주례의瘍醫, 송대의瘡腫兼折瘍科, 金鑄兼書禁科와 고려시대 呪禁業¹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¹¹⁾ 이는 초보적이지만 도침술을 국가가 보다 전문화하기 위한 노력이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현재 도침술은 도자기편과 칼 모양의 침끝을 가진 鈹鍼을 도구로 하여 경피의 천부뿐 아니라 경근과 경맥의 심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의 한의학 문헌인 《黃帝內經》에 도침술의 도구인 鈹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 시술방법, 적응증과 금기증이 등장하는 것에 비추어 펄석증 도자기편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활용한 도침술이 이전에도 시행되었으며 《黃帝內經》이 저술된 시기인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임상적 경험과 근거의 축적이 적지 않았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黃帝內經》 이후 문헌을 통해 도침술에 대한 기록이 보다 세밀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교문화가 신체에 대한 침습과 절개를 불경시하던 당시의 문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적 요구 등에 의해 도침술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송대와 고려시대에 이르러는 초보적이지만 국가주도 아래 도침술을 전문화하고자 했던 시도 또한 존재했다.

2. 조선시대 도침요법의 발전

조선시대는 도침술이 크게 발전한 시기이다. 《조선왕조

실록》에 “조선 사람은 음식의 날 것과 찬 것을 먹기 좋아하므로 중기가 많다고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 한다”는 기록¹²⁾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조선시대 중기의 유병률이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왕 중 문종, 성종, 효종, 정조가 중기가 원인이 되어 사망했으며, 역대 왕 중에 중기로 고생하지 않은 왕이 거의 없어 중기는 국사를 자주 중단케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가 더욱 열악했을 일반 백성은 그 유병률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¹³⁾. 도침술은 조선시대 중기치료에 광범위하게 응용되었으며 탕약을 구하기 힘들었던 민간에서 도침술에 대한 실행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에는 국가주도 아래 전문서적의 발간, 치중의의 배치, 치중청의 설치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침술은 매우 높은 수준의 독창적 발전을 이뤘다.

도침술을 다룬 전문서적은 주요하게 6권으로 볼 수 있다.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도침술의 당시 상황에 비해 서적이 부족했던 이유는 도침술이 양반계층이었던 儒醫를 중심으로 시술되기 보다는 첩약을 구하기 힘들었던 서민층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까닭이다¹⁴⁾. 도침술의 명의로 알려진 任彦國¹⁵⁾, 白光珪¹⁶⁾ 등이 통상의 儒醫와 業醫가 아니었던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任彦國의 《治腫秘方》, 任彦國의 유파가 저술하였을 것으로 유추되는 《治腫指南》, 白光珪의 《白光珪知事公遺事 附 經驗方》, 李宜春의 《瘍醫微》, 姜彝五의 《若山好古腫方撮要》, 저자 미상의 《三十六腫圖錄》이 조선시대 발간되었던 주요한 도침술을 다룬 전문서적이다¹⁷⁾. 이 중 대표적 서적인 《治腫指南》¹⁸⁾을 살펴보면 도침술의 치료범위와 시술방법, 발전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책 1권에는 鍼破, 鍼刺術이 비교적 상세한 도형과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다.

- 背腫圖
- 已膿腫形圖鍼破法
- 長腫形圖鍼破法
- 腫中陷裏形圖
- 圓腫形圖鍼破圖
- 內腫圖
- 陰腫圖
- 項髮際腫圖
- 鼓脹圖
- 胸腹痛圖
- 腰痛圖
- 浮腫圖
- 喉嚨圖

- 疔腫圖
- 食傷圖
- 上氣證圖
- 項筋不仁圖
- 耳痛圖
- 咳嗽圖
- 淋疾圖
- 背寒圖
- 슬빈중도
- 疝氣痛圖
- 요배구루도
- 狐疝痛圖
- 面腫圖
- 咳嗽氣逆圖
- 脚氣圖
- 腰部下鍼圖
- 비주곡급도
- 眼胞八穴圖
- 眼臉胞虛腫圖
- 背輪刺鍼圖

위의 목차¹⁹⁾를 통해 도침술은 조선시기 종기치료를 중심으로腰痛과 목을 돌리지 못하는項筋不仁, 요배구루 등 근육관절의 질병, 효천, 소화기 질환 등 내과 질환에도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등 높은 수준의 독창적 발전을 이루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기존의 서적들은 치료대상이 종기의 모양을 중심으로 간단히 구분되어 있는데 반해 해부학적 부위를 중심으로 시술부위가 매우 세분화 된 점도 눈에 띈다.

조선 중기는 도침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궁중에 도침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종의를 두었을 뿐 아니라, 체계적 연구를 위한 치종청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민간에서 시작된 치종학의 발달은 조선시대 초기를 지나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이들 가운데 출중한 사람을 조정에서 가려 뽑아 치종의로 정식 기용하였다. 성종 16년(乙巳) 《經國大典·禮典》의 “方書에 통하지 못해도 癰腫 및 諸惡疾을 능히 치료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용하라”는 기록을 비롯하여 치종의에 관련한 여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치종청 설립과 관련하여 職官考에는 “선조 36년에 전의감에 병합하여 復置한다. 그리고 전의감의 의학교수 2인 중 1인을 치종청으로 移屬하고 ‘침의 3인, 前衛 10인, 생도 10인을 배치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하며 이는 치종청이 일시 폐지되었다가 이때 다시 부활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 중기 치종청이 이미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이처럼 조선시대의 도침술은 종기를 치료하는 주요한 치료술로 자리 잡음으로써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주도로 연구되고 보급되었다. 이처럼 치종의와 치종청이 설립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통해 도침술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널리 시행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볼 수 있다. 《치종지남》 등의 서적을 통해 단순 종기치료뿐 아니라 근육관절의 질환과 내과적 질환에도 도침술이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등 독창적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립제주박물관에 전시된 기녀의 비녀가 응급처치용 침술도구로 사용된 점, “성종 23년(壬子) 6월 제주 의녀 張德이 銀匕를 사용해 치종을 去했다”는 기록과 《癰醫微》의 서문에 실린 민간에서 아무 데나 펴먹을 사용하는 세태를 개탄하는 내용²¹⁾이 실린 점 등을 종합할 때 세련된 침도구인 鈹鍼을 구하기 어려웠던 민간에서는 도침술을 활용함에 있어 날카로운 도기편 등의 펴먹뿐 아니라 비녀와 같은 취득의 편리에 따른 다양한 도구들이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일제강점기 이후에서 현재까지

조선시대 큰 발전을 이루었던 도침술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총독부 위생과는 1912년 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 발표를 시작으로 醫生規則과 按摩術·鍼術·灸術營業取締規則을 발표하였다. 이상의 법률에 대해 신동원은 그의 논문에서 그 의미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한의사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의미한다.

둘째, 기존 한의학을 배우는 학생을 의미하는 醫生이라는 이름으로 격하시키는 등 한의학의 지위를 서양의학보다 저열한 것으로 규정하였음을 의미한다.

셋째, 침구사·안마사·구사를 배출함으로써 동양의학을 準的 의학이 아닌 부분적 기술로 격하하였음을 의미한다²²⁾.

이러한 총독부의 한의약 억압정책으로 인해 강점기 기간 동안 한의학은 제도권에서 밀려난 채 존폐의 기로에 서야 했다. 특히 식민지 초기와 중기 의생으로 격하된 한의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한 갱신관련시험은 대부분 서양의학 관련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²³⁾ 한의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근대적 기관조차도 식민정책으로 인해 설립하지 못하였다. 한의학의 연구와 임상실천은 크게 후퇴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중후기 任彦國, 白光珪 등을 필두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던 도침술은 기술을 전수받았던 몇몇 의생에 의해 면면히 이어져오다 그 맥이 끊겨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한의학 복원과정에서 도침술은 여타의 한의약영역에 비해 연구복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도침술이 儒醫가 아닌 하층민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서적보다는 경험의 전수에 의해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다²⁴⁾. 전문적인 서적의 부족은 도침술의 복원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도침술의 술기가 전수되기 위해서는 도제식 교육 등 실제적 전수가 필수적이지만 강점기를 거치며 경험적 술기 전수의 맥이 끊긴 점이다.

셋째, 이원화된 한국의료에서 한의학이 서양의학의 상보적 위치로 자리 잡음에 따라 외과시술의 성격이 강했던 도침술의 부활이 시대적으로 요청되지 못했던 점이다.

도침술은 1980년 후반에 이르러서 韓方外科學과 조선시대 治腫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시금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다. 1987년 채병윤이 《韓方外科》에서 한국 외과학의 역사에 대해 정리하였고, 신좌섭 등이 조선시대 치종학에 대하여 6개의 외과 전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논문을 제출하였으며, 방성혜 등이 침과 도를 이용한 수술법에 대한 문헌조사 논문을 제출하였다. 특히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의 김남일은 한국한의학의 학술유파 중 하나로 외과학파를 제시하여 외과적 시술인 도침술 등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음을 주장하였다²⁵⁾. 또한 통상의 호침 외에도 과거 구침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원광대학교 경혈학교실 등을 중심으로 논문이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九鍼 복원을 위한 좌담회가 민족의학신문사를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임상면에서는 전통 九鍼 중 鈹鍼으로 현대화된 칼모양의 침인 刀鍼이 2002년 식약청을 통해 정식 한방의료기기로서 등록된 이후 刀鍼을 활용한 임상실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刀鍼은 지속적 손상인 勞傷에 기인한 氣穴循環不全으로 경피뿐 아니라 경근 경맥에 까지 병이 이른 만성질환에 刀鍼을 활용한 치료가 즉각적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III. 고찰 및 결론

도침술은 고대부터 행해져왔던 도자기편과 칼 모양의 침인 피침을 활용하여 경피뿐 아니라 경근 경맥의 사기를 몰아내고 기혈을 조정했던 한의학 고유의 침술이다. 도자기편과 같은 날카로운 편석과 鈹鍼과 같은 칼 모양의 침 도구를 활용한 도침술에 대한 기록은 많은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침술은 《韓非子》와 《黃帝內經》에 최초 기록된 이후, 《五十二病方》, 《脈法》, 《劉涓子鬼遺方》, 《外科大成》, 《外科理例》, 《外科精要》 등에도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후대에 이룰수록 부위와 시술방법이 구체화되고 적응증과 금기증이 명확해짐을 비추어볼 때, 도침술의 임상실천과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도침술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을 뿐 아니라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조선시대 도침술은 종기치료를 위해 민간을 중심으로 도침술의 임상실천 및 보급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임언국, 백광현, 이의춘, 김순몽, 윤후익, 피재길, 이동, 조광일 등 많은 명의들이 탄생했다²⁶⁾. 이중 임언국은 서양 외과술의 창시자인 피레에 빗대어 동양의 피레라 불리었으며, 백광현은 숙종 8년 10월 김석주를 책임자로 하는 사신단으로 청나라에 파견되어 청나라 관리의 모친을 치료하여 그 명성이 청나라에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다²⁷⁾. 특히 조선 중기에 이르러 국가의 적극적 지원 속에 치종회가 선발되고 치종청이 설립되었다. 이는 유교의 영향으로 외과적 시술을 천대시했던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조선시대에 도침술에 관한 6권의 전문서적이 발간되었는데 이중 대표적인 서적인 任彦國의 《治腫指南》을 살펴보면 단순 종기뿐 아니라 근육 및 관절의 질환, 내과 질환에 이르기까지 도침술이 다양한 질병에 독창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시술 또한 매우 고도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구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鈹鍼 외에도 曲鍼 등 다양한 형태의 침 도구가 활용되었으며 세련된 침 도구를 구하기 힘들었던 민간에서는 취득의 편리에 따라 도자기편, 대나무, 비녀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일제강점기 한의약업약정책으로 한의학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도침술 또한 크게 후퇴하였다. 특히 도침술은 신체보존을 중시하던 유교중심의 사회에서 儒醫가 아닌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이유에서의 서적의 부족, 도침술과 같은 외과적 시술의 전수 시 반드시 필요한 도제식 전수가 맥이 끊겼던 점, 이원화된 의료특성상 서양 의학의 상보적 위치에 한의학이 자리매김함으로써 한의학의 외과적 시술이 요청받지 못한 점 등의 이유에서 한의사 제도의 부활 이후에도 그 연구와 임상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1980년 후반에 들어서야 韓方外科學과 治腫醫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韓方外科學과 治腫醫學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도침술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임상실천면에서는 2002년 칼 모양의 침인 刀鍼의 정식의료기기 등록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도침술은 통상의 호침 외에 과거 九鍼 중 鈹鍼을 활용한 경혈침술이다. 종래에 시행되었던 많은 한의학적 치료가 현재는 소멸되었음에도 도침술은 한의학계의 뜻있는 연구자

들의 노력과 자체의 우수성으로 인해 현재에도 정식한방의 료행위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조선시기 종기를 치료해야 했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높은 수준의 독창적 발전을 이루 었던 도침술이 이제는 만성 질환치료 등에 적극적으로 이 용될 것이다.

IV. References

1. Son IC, Gwon OS, Kim YL, Ahn SH, Kim JH. Literature Study on the Conformation and Application of Nine Classical Needles.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1 ; 28(1) : 169.
2. Pahng Sung Hye, Cha Wung Seok, Kim Nam Il. A Research of Ancient operation through traditional medical documents. *Korean Society of Medical History*. 2007 ; 20(2) : 85.
3. Knut Haeger. *The Illustrated History of Surgery*. Yirrum. 2005 : 13.
4. Gwon JC, You GR, Jung SD. Western medicine and surgery on the comparative study of Oriental Medicin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2006 ; 9(1) : 238-74.
5. Kim KU. Mawangtoe No.3 Han year excavated from tombs paper. *Chinese Medical History*. Daesung Publisher. 2006 : 70.
6. Kim KU. The world's first trauma professional treatment book. *Chinese Medical History*. Daesung Publisher. 2006 : 109.
7. Kim KU. Chinese Qing gigon ompiled by the Medical Books. *Chinese Medical History*. Daesung Publisher. 2006 : 326.
8. Kim KU. Myeon country's medical scientists of books written by Wanggi. *Chinese Medical History*. Daesung Publisher. 2006 : 326.
9. Kim KU. Chinese Song Jinjamyeong of the country compiled by Book of Surgeon. *Chinese Medical History*. Daesung Publisher. 2006 : 188.
10.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cient. *Korean State Working in the Past of One sector*.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2001.
11. Shin JS, Ki CD. On the Traditional Surgery of Choson Period(2). *Hwang SI.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8 ; 7(1) : 94.
12.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1452.
13. Shin JS, Ki CD. On the Traditional Surgery of Choson Period(1). *Hwang SI.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7 ; 6(2) : 3.
14. Shin JS, Ki CD. On the Traditional Surgery of Choson Period(2). *Hwang SI.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7 ; 6(2) : 5.
15. Shin JS, Ki CD. On the Traditional Surgery of Choson Period(2). *Hwang SI.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7 ; 6(2) : 6.
16. Shin JS, Ki CD. On the Traditional Surgery of Choson Period(1). *Hwang SI.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8 ; 7(1) : 82.
17. Shin JS, Ki CD. On the Traditional Surgery of Choson Period(2). *Hwang SI.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8 ; 7(1) : 75-88.
18. Shin JS, Ki CD. On the Traditional Surgery of Choson Period(2). *Hwang SI.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7 ; 6(2) : 2.
19. Shin JS, Ki CD. On the Traditional Surgery of Choson Period(2). *Hwang SI.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8 ; 7(1) : 80-1.
20. Shin JS, Ki CD. On the Traditional Surgery of Choson Period(2). *Hwang SI.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7 ; 6(2) : 6-7.
21. Shin JS, Ki CD. On the Traditional Surgery of Choson Period(2). *Hwang SI.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8 ; 7(1) : 84.
22. Shin DW. Traditional Medicine under Japanese Rule.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003 ; 12(2) : 112.
23. Shin DW. Traditional Medicine under Japanese Rule.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003 ; 12(2) : 121.
24. Shin JS, Ki CD. On the Traditional Surgery of Choson Period(1). *Hwang SI.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8 ; 7(1) : 95.
25. Seo JY, Oh JH, Kim TY et al. A Study Orthopraxia & Dermatology. *Journal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2006 ; 19(4) : 71.
26. Bang SH. Joseon. Struggling with boil. Sidaew Pu-blisher. 2012 : 223-78.
27. Bang SH. Best surgeons Baekgwanghyeon of Joseon. Sidaew Publisher, 2012 : 97-111.